분류사 빈칸노트(문화사)

주제 01. 불교 사상과 승려

1. 삼국의 불교

1 불교의 수용

고구려는 전진 승려 순도를 통해 소수림왕 때 불교를 수용하였고(372), 백제는 침류왕 때 동진 승려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했다(384). 신라는 눌지왕 때 고구려 승려 묵호자가 불교를 전했으나, [01] 때 이차돈의 순교를 거치면서 국가적으로 공인되었다.

2 각국의 불교

고구려에서는 삼론종이 유행하였으며, 백제는 계율종이 성행하였다. 백제 승려 겸익은 성왕 때 인도에서 율문을 가지고 귀국하였다.

신라에서는 불교가 왕권과 밀착되어 수용되었다. 왕즉불 사상은 왕과 왕실의 권위를 높여 주었다. [02] 은 스스로 전륜성왕을 칭하였으며, 고구려에서 귀화한 승려 혜량을 국통(승통)으로 삼아 불교 교단 조직(국통-주통-군통)을 정비하고 황룡사를 건립하였다.

이 무렵 신라에서 널리 받아들인 불교의 중심 교리는 업설과 미륵 신앙이었다. 업설은 왕의 권위와 귀족들의 특권을 정당화하는 측면이 있었다. 미륵 신앙은 화랑 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신라 사회에 정착되었다.

3 호국불교, 밀교

삼국 시대의 불교는 호국적인 성격이 강했다. 진흥왕은 팔관회를 개최하여 국난의 극복과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였다. 백제 무왕이 건립한 미륵사,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세운 [03] 모두 호국의 기원이 담긴 것이다.

삼국 후기 신라의 민간사회에서는 불교가 샤머니즘과 유착되어 출산, 질병치료, 외적격퇴 등의 현세구복적인 성격을 띠는 밀교가 성행하였다.

4 승려(원광, 자장)

진평왕 때 활동한 승려 원광은 세속오계를 만들고, 수나라에 군사를 청하는 걸사표를 지었다. 선덕여왕 때 활동한 승려 [04] 은 대국통을 역임하였으며, 황룡사 9층 목탑의 건립을 건의하였다.

2. 남북국 시대의 불교

1 원효와 의상

원효와 의상은 통일기 무렵에 활동하였다. 원효는 대승기신론소와 금강삼매경론 등을 저술하여 불교의 사상적 이해 기준을 확립하였다. 원효는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다른 종파들과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고 분파 의식을 극복하려는 십문화쟁론을 지었다. 의상은 [05] 를 저술하여,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화엄 사상을 정립하였다. 의상은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교단을 형성하여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원을 건립하여 불교문화의 폭을 확대하였다.

원효는 극락에 가고자 하는 [06] 신앙을 자신이 직접 전도하며 불교 대중화의 길을 열었고, 의상은 아미타 신앙과 함께 현세에서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 신앙을 이끌었다.

2 그 밖의 승려

신라 승려 [07] 은 당에서 현장으로부터 유식학을 배워 독자적인 유식학파를 세웠다. 8세기 신라 승려 [08] 는 인도와 중앙아시아 각 성지를 순례하고 "왕오천축국전"이라는 기행문을 남겼다. 경덕왕 때 승려 [09] 는 김제 금산사를 근거지로 법상종을 열었다.

3 선종 불교

선종 불교는 820년 경 승려 도의가 귀국하면서 신라 사회에 널리 확산되었다. 경전의 이해를 통하여 깨달음을 추구하는 교종과는 달리, 선종은 문자를 뛰어넘어 구체적인 실천 수행을 통하여 각자의 마음속에 내재된 깨달음을 얻는다는 실천적인 경향이 강하였다.

선종은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려는 호족의 이념적 지주가 되었다. 호족들의 후원으로 선종 사찰이 건립되어 [10] 이 갖추어졌다. 선종이 널리 퍼지면서 승탑과 탑비가 많이 건립되었다.

4 발해의 불교

발해는 왕실과 귀족 사회에서 불교가 널리 성행하였다. 상경에는 많은 사원이 건립되고 불상도 많이 제작되었다. 문왕은 불교의 전륜성왕 이념을 받아들여 스스로 불교적 성왕을 칭하였다.

3. 고려의 불교

1 불교 정책

태조는 개경과 그 주변에 비보사찰을 건립하고, 훈요10조에서 불교행사(연등회, 팔관회)를 중시하라고 당부하였다.

광종은 승과 제도를 실시하고, 왕사와 국사 제도를 두었다. 또 [11] 를 창건하고, 사원에는 토지와 노비를 지급하였다.

각종 불교 행사가 거행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국적으로 열리는 연등회와 개경(음력 11월 보름)과 서경(음력 10월 보름)에서 열리는 팔관회였다. 특히 [12] 는 토착 민간 신앙과 불교가 융합된 행사로 왕과 신하가 함께 춤과 노래를 즐기고 부처와 천지신명,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에게 제사하면서 국가와 왕실의 태평을 기원하였다. 이 행사에는 여러 나라의 상인과 사인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고 답례품을 받아가는 형식의 무역이 이루어졌다.

2 고려 초기의 승려

광종 때 활약한 승려 [13] 은 중국에 천태학을 전하고, "천태사교의"를 저술하였다.

이 무렵 [14] 는 분열된 화엄 종단을 정비하였으며, 보살의 실천행을 펼쳤다. 이를 위해 보현십원가 등 불교의 교리를 담은 향가를 지어 대중에 전파하였다.

또 중국에서 법안종을 배워온 [15] 는 법안종을 종심으로 선종을 정비하였다.

3 의천

고려 중기에는 왕실의 지원을 받는 화엄종과 문벌귀족의 지원을 받는 법상종이 나란히 번성하면서 서로 반목하였다. 11세기에 이미 종파적 분열상을 보인 고려 불교계에 문종의 왕자로서 승려가 된 의천은 교단 통합 운동을 펼쳤다. 그는 흥왕사를 근거지로 삼아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 하였으며, 선종을 통합하기 위하여 국청사를 창건하여 [16] 을 창시하였다.

의천은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아울러 강조하는 교관겸수를 제창하였다.

한편 의천은 흥왕사에 교장도감을 설치하고 교장 간행을 주도하였다. 또 "원종문류", "석원사림", "천태사교의주", "신편제종교장총록" 등을 저술하였다.

4 지눌

지눌은 명리에 집착하는 당시 불교계의 타락상을 비판하였다. 그는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독경과 선 수행, 노동에 고루 힘쓰자는 개혁 운동인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다. 송광사에 중심을 둔 수선사는 개혁적인 승려들과 지방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지눌은 [17] 을 개창하고, 정혜쌍수와 돈오점수를 기치로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통합하는 불교 통합 운동을 전개하였다.

5 고려 후기의 승려

[18] 은 유불일치설을 주장하며 심성의 도야를 강조하여 장차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19] 는 백성들의 신앙적 욕구를 고려하여 강진 만덕사(백련사)에서 백련결사를 제창하였다.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참회하는 법화 신앙에 중점을 둔 백련결사 역시 지방민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고, 수선사와 양립하며 고려 후기 불교계를 이끌었다.

20 는 원에서 임제종을 들여와 전파시켰으며, 공민왕의 왕사가 되어 불교 교단을 정비하려고 하였다.

4. 조선의 불교

1 억불 정책

조선 초기에는 21 를 실시하여 승려가 되고자 하는 출가를 제한하였다. 세종 때에는 교단을 정리하면서 선종과 교종 두 종파에 모두 36개 절 만 인정하였다.

성종 때 도첩제를 폐지하여 승려로의 출가를 금지하고 승려들의 도성 출입도 금지하였다. 이후 불교는 왕실에서 점차 멀어져 산간 불교로 바뀌어 갔다.

2 불교의 명맥 유지

세조 때는 22 을 설치하여 불교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여 간행하는 등 적극적인 불교 진흥책을 펴서 일시적으로 불교가 중흥되기도 하였다. 이때 "월인석보"를 출간하고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건립하였다.

명종 때에는 문정 왕후의 지원 아래 일시적인 불교 회복 정책이 펼쳐진 결과 보우(普雨)가 중용되고 승과가 부활되기도 하였다.

정 답

01	법흥왕	07	원측	13	제관	19	요세
02	진흥왕	08	혜초	14	균여	20	보우
03	황룡사 9층 목탑	09	진표	15	혜거	21	도첩제
04	자장	10	9산 선문	16	해동천태종	22	간경도감
05	화엄일승법계도	11	귀법사	17	조계종		
06	아미타	12	팔관회	18	혜심		

주제 02. 역사서

1. 고대와 고려의 역사서

1 고대

고구려는 영양왕 때 이문진이 "유기" 100권을 간추려 "신집" 5권을 편찬하였다. 백제는 근초고왕 때 고흥이 "서기"를, 신라에서는 진흥왕 때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 그러나 이들 역사서는 현재 전하지 않는다.

신라 말의 문장가 [01] 이 "제왕연대력"을 지었으나 현재 전하지 않는다.

2 고려 전기

고려는 역대 왕들의 치적을 기록한 왕조실록을 편찬하였다. 고려 초기의 실록은 현종 때 거란의 침입으로 소실되었다. 현종의 명으로 황주량 등이 "7대 실록"을 편찬하였으나 현재 전하지 않는다.

인종 때에는 김부식 등이 왕명을 받아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로서, 고려 초에 쓰여진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02] 로 서술되었다. 삼국사기는 본기(왕조 역사), 연표, 지(제도), 열전(신하의 전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라 계승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3 고려 후기

고려 후기에는 민족적 자주 의식을 바탕으로 전통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대두하였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역사서로는 동명왕편, 해동고승전, 삼국유사, 제왕운기 등을 꼽을 수 있다.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고구려 건국의 영웅인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일종의 영웅 서사시로서, 고구려의 계승 의식을 반영하고 고구려의 전통을 노래하였다.

고종 때 각훈이 쓴 [03] 은 삼국 시대의 승려 30여 명의 전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현재 일부만 남아 있다.

충렬왕 때 일연이 쓴 [04] 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나 전래 기록을 수록하는 등 우리의 고유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으며,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여겨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같은 시기에 이승휴가 쓴 [05] 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단군으로부터 서술하면서 우리 역사를 중국사와 대등하게 파악하는 자주성을 나타내었다.

충숙왕 때 민지가 "본조편년강목"을 저술하였으나 현재 전하지 않는다.

고려 말에는 정통 의식과 대의명분을 강조하는 성리학적 유교 사관이 대두하였다. 이러한 역사서로 [06] 의 "사략"이 있는데, 지금은 사략에 실렸던 사론만 전한다.

2. 조선 전기

1 조선 왕조 실록

한 왕대의 역사를 후대에 남기기 위한 실록의 편찬은 태조실록부터 철종실록까지 계속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기록 문화유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왕위가 바뀌면 춘추관에서 실록청을 설치하고 전왕의 통치기록(사초, 시정기, 승정원일기 등)을 모두 묶어서 실록을 편찬했다. 조선 초기에는 실록을 모두 4부를 만들어 사고(춘추관, 전주, 성주, 충주)에 분산하여 보관했다.

세조 때부터 실록 중에서 선왕의 치적을 발췌한 [07] 을 편찬하여 후대 왕들이 귀감을 삼도록 하였다.

2 15세기의 역사서

태조 때 정도전은 고려국사를 편찬하여 고려 시대의 역사를 정리하고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밝히려 하였다. 이후에도 고려 시대의 역사를 자주적 입장에서 재정리하는 작업은 계속되어 문종 때 기전체의 [08] 와 편년체의 고려사절요가 완성되었다.

우리나라의 전체 역사를 편찬하려는 노력도 계속되어 성종 때 [09] 이 간행되었다. 이 책은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편년체 통사로서, 서거정 등이 편찬한 것이다.

3 16세기의 역사서

16세기에는 왕도 정치를 추구하는 사림들의 역사의식을 반영하는 역사서가 편찬되었다. 박상의 "동국사략", 이이의 "기자실기"가 대표적인 역사서이다.

이 밖의 역사서로 중종 때 유희령이 쓴 "표제음주동국사략"이 있다.

3. 조선 후기

1 17세기 역사서

홍여하는 "동국통감제강"을 지어 유교국가의 전통이 기자로부터 마한, 신라로 이어져 왔다고 주장하였다. [10] 은 "동국역대총목"에서 단군을 정통국가의 시발로 하여 기자-마한-통일신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2 이익과 안정복

이익은 실증적이며 비판적인 역사 서술을 제시하고,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 우리 역사를 체계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익의 제자인 안정복은 [11] 을 저술하여 이익의 역사의식을 계승하였다. 이 책은 고조선으로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서술한 것으로, 우리 역사의 독자적 정통론을 세워 이를 체계화하였으며, 역사 사실들을 치밀하게 고증하여 고증 사학의 토대를 닦았다. 안정복은 마한을 정통 왕조로 보았으며, 삼국 시대는 정통 국가가 없는 시대로 파악하였다.

그 후 안정복은 조선 왕의 역사를 정리한 "열조통기"를 저술하였다.

3 이긍익, 한치윤

이긍익은 기사본말체의 역사 서술 방법을 택하여 [12] 을 편찬하였다. 이 책은 조선 시대의 정치와 문화를 객관적, 실증적으로 정리하였다.

한치윤은 단군 조선부터 고려 시대까지를 서술한 [13] 를 편찬하였는데, 이 책에서 500여 종의 중국 및 일본의 자료를 참고하여 민족사 인식의 폭을 넓혔다.

4 유득공, 이종휘

이종휘는 동사(東史)에서 고구려 역사 연구를, 유득공은 [14] 에서 발해사 연구를 심화하였다. 이들은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만주 지방까지 확대시킴으로써 한반도 중심의 협소한 사관을 극복하는 데 힘썼다.

정 답

01	최치원	05	제왕운기	09	동국통감	13	해동역사
02	기전체	06	이제현	10	홍만종	14	발해고
03	해동고승전	07	국조보감	11	동사강목		
04	삼국유사	08	고려사	12	연려실기술		

주제 03. 유학의 발달

1. 고대

1 교육기관

1) 삼국 시대

고구려는 수도에 태학을 세워 유교 경전과 역사서를 가르치고, 지방에는 [01] 을 세워 청소년들에게 한학과 무술을 가르쳤다.

백제는 5경 박사와 의박사, 역박사 등을 두어 유교 경전과 기술학 등을 가르쳤다. 백제가 북위에 보낸 국서는 매우 세련된 한문 문장으로 쓰여졌으며, 사택지적 비문에는 백제 귀족인 사택지적이 불당을 세운 내력을 기록하고 있다.

[02] 을 보면 신라에서도 청소년들이 유교 경전을 공부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2) 남북국 시대

통일 신라에서는 신문왕 때 국학이라는 유학 교육 기관을 설립하였다. 그 후 경덕왕 때는 국학을 태학감으로 고치고 박사와 조교를 두어 논어와 효경 등의 유교 경전을 가르쳤다. 원성왕 때는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시험하여 관리를 채용하는 [03] 를 실시하였다.

발해는 주자감을 설립하여 귀족 자제에게 유교 경전과 학문을 가르쳤다. 또 도당 유학생을 다수 파견하였으며, 당의 빈공과 급제자를 다수 배출하였다.

2 유학자와 문인

통일기 무렵에 활약한 강수는 '답설인귀서' 등 외교 문서를 잘 지은 문장가로 유명하였으며, [04] 은 유교 경전에 조예가 깊었고, 이두를 정리하여 한문 교육의 보급에 공헌하였다. 그는 신문왕에게 '화왕계'라는 글을 바쳐 임금도 향락을 멀리하고 도덕을 엄격하게 지킬 것을 강조하였다.

성덕왕 때 활동한 [05] 은 화랑세기, 고승전, 한산기 등을 지었다. 그의 저서는 신라의 문화를 주체적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통일 이후 신라와 당의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당에 건너가 공부한 유학생들이 많아졌다. 그 중에서 이름난 인물은 신라 말기의 김운경, 최치원 등이었다. 특히 [06] 은 당에서 빈공과에 급제하고 문장가로 이름을 떨친 후 귀국하여 진성여왕에게 개혁안 10여 조를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그 후 은둔 생활을 하면서 뛰어난 문장과 저술을 남겼다. 그가 지은 계원필경과 사산비문이 오늘날까지 전해 오고 있다. 그는 유학자이면서 불교와 도교에도 조예가 깊었다.

2. 고려

1 유학의 발달

고려 시대에는 유교와 불교가 함께 발전하였다. 유교는 정치와 관련한 치국의 도로서, 불교는 신앙생활과 관련한 수신의 도로서 서로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공존하였다.

성종 때에는 유교 정치사상이 확고하게 정립되고, 유학 교육 기관이 정비되었다. 이 시기의 대표적 유학자는 최승로였다. 최승로는 시무 28조의 개혁안을 올렸으며, 그의 유교 철학은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특성을 지녔다.

성종은 학문 진흥을 위해 [07] 을 실시하였다.

고려 중기에는 문벌 귀족 사회의 발달과 함께 유교 사상도 점차 보수적인 성격으로 바뀌어 갔다.

문종 때 활약한 [08] 은 해동공자라는 칭송을 들었으며,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 9재 학당을 세워 유학 교육에 힘썼다. 그는 고려의 훈고학적 유학에 철학적 경향을 새로이 불어넣기도 하였다.

숙종 때 평양에 기자사당을 세워 국가적으로 제사를 지냈다. 인종 때 활약한 김부식은 고려 중기의 보수적이면서 현실적인 성격의 유학을 대표하였다.

2 성리학의 전래

남송의 주희가 집대성한 성리학은 경전의 자구 해석에 힘쓰던 훈고학과 달리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신유학이었다.

고려에 성리학을 처음 소개한 사람은 충렬왕 때 안향이었다.

[09] 은 대도(북경)에 설립된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였다.

성리학이 크게 진흥된 것은 공민왕 때이다. 이때 성균관을 순수한 유교 교육 기관으로 개편하였다. [10] 은 정몽주, 정도전, 권근 등을 가르쳐 성리학은 더욱 확산되었다.

성리학을 수용한 사람들은 대부분 신진 사대부였다. 이들은 현실 사회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개혁 사상으로 성리학을 받아들였으며,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측면보다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실천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유교적인 생활 관습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학과 주자가례를 중시하고 권문세족과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였다.

3 교육기관과 관학진흥책

개경에는 국립대학으로 국자감이 설치되었다. 국자감에는 국자학, 태학, 사문학과 같은 유학부와 율학, 서학, 산학 등의 기술학부가 있었다. 유학부에는 문무관 7품 이상 관리의 자제가, 기술학부에는 8품 이하 관리나 서민의 자제가 입학하였다. 그리고 지방에는 향교가 설치되어 지방 관리와 서민 자제들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고려 중기에는 최충의 9재 학당(문헌공도)를 비롯한 사학 12도가 융성하였다. 사학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과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자 국자감의 관학 교육은 위축되었다.

정부에서는 관학 진흥을 위한 여러 시책을 추진하였다. 예종 때에는 국자감을 재정비하여 7재라는 전문 강좌를 설치하고, [11] 라는 장학 재단을 두어 관학의 경제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궁중에 도서관 겸 학문 연구소를 두어 유학을 진흥시켰다. 이어서 인종 때에는 경사 6학을 정비하고 유학 교육을 강화하였다.

무신 정권기에는 교육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충렬왕 때에 이르러 다시 관학의 진흥에 힘썼다. 이때에 양현고의 부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교육 재단으로 [12] 을 설치하였다. 또 국립교육기관(성균감, 성균관)에 공자 사당인 문묘를 새로 건립하여 유교 교육의 진흥에 나섰다.

3. 조선 전기

1 교육기관

조선은 서울에 성균관을 두었는데 이는 최고 학부의 구실을 하였고, 중등 교육 기관으로는 중앙의 4부학당(부학)과 지방의 향교가 있었다. 또, 사립 교육 기관으로 서원과 서당 등이 있었다.

성균관의 입학 자격은 생원, 진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향교는 중등 교육 기관으로, 성현에 대한 향례와 유생들의 교육,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 부목군현에 각각 하나씩 설립되었다. 향교의 정원은 인구 비례에 따라 책정되었으며, 중앙에서 교수 또는 훈도를 파견하였다. 향교의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자는 소과 초시를 면제해 주고 성적 미달의 낙강생은 군역을 지도록 하였다.

사립 교육 기관으로 서원이 설립되었는데, 풍기 군수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 그 시초이다. 백운동 서원은 이황의 건의로 명종 때 [13] 이라는 사액을 받았다. 서원에서는 봄가을로 향음주례를 지내는 동시에, 인재를 모아 학문도 가르쳤다. 서원은 이름난 선비나 공신을 숭배하고 그 덕행을 추모하였고, 유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학문을 닦고 연구함으로써 향촌 사회의 교화에 공헌하였다.

2 성리학의 정착

정도전, 권근 등 관학파는 성리학에만 국한하지 않고 한당 유학, 불교, 도교, 풍수지리 사상, 민간 신앙 등을 포용하여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며, 특히 주례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고려 말 온건 개혁파로 조선의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재야로 물러난 길재에서 비롯된 사학파의 학문적 전통은 성종 때에 본격적으로 중앙 정계에 진출한 사림이 계승하였다. 이들은 형벌보다는 교화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였으며, 공신과 외척의 비리와 횡포를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하여 비판하고, 당시의 사회 모순을 성리학적 이념과 제도의 실천으로 극복하려고 하였다.

3 주요 성리학자

1) 선구자

[14] 은 이(理)보다는 기(氣)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불교와 노장 사상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지녔다.

노장 사상에 포용적이었던 [15] 은 학문의 실천성을 특히 강조하였다. 이언적은 기보다는 이를 중심으로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여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2) 성리학의 집대성(이황과 이이)

이황은 이기호발설을 내세워 주리론을 확립하였다. 그는 주자서절요, 성학십도 등을 저술하였으며, 주자의 이론에 조선의 현실을 반영시켜 나름대로의 체계를 세우려고 하였다. 그의 사상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로서 인간의 심성을 중시하고 근본적이며 이상주의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이후 이황의 문인들은 영남학파를 이루었고, 이황의 사상은 일본에 전해져 일본의 성리학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이는 이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의 역할을 강조한 주기론을 집대성하였다. 그의 철학은 기발이승일도설과 이통기국론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이의 사상은 관념적 도덕 세계와 경험적 현실 세계를 동시에 강조하여 현실적이며 개혁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동호문답, 격몽요결, 성학집요 등의 저술에서 이이는 16세기 조선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통치 체제의 정비와 수취 제도의 개혁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이의 문인들은 기호학파를 형성하였다.

4 학파와 붕당

선조 때 서경덕 학파와 이황 학파, 조식 학파가 [16] 을 형성하였는데 이후 북인(조식 학파)과 남인(이황 학파)으로 분화하였다. 이이 학파와 성혼 학파는 [17] 을 형성하였다.

광해군 때 집권한 북인은 임진왜란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동법의 시행과 은광 개발 등 적극적인 사회경제 정책을 추진해 나갔으며, 중립 외교를 취하는 등 성리학적 의리 명분론에 크게 구애받지 않았다. 이는 서인과 남인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정국을 주도하자 서경덕과 조식의 사상, 양명학, 노장 사상 등은 배척을 당하고, 이황과 이이의 학문, 즉 주자 중심의 성리학만이 조선 사상계에서 확고한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5 예학

양난 이후 유교적 질서의 회복을 강조하면서 예학이 발달하였다. 서인학자 김장생이 "가례집람", 남인학자 정구가 "오선생예설분류"를 편찬하였다. 각 학파 간 예학의 차이는 전례 논쟁을 통하여 표출되면서 현종 때 두 차례 예송 논쟁이 전개되었다.

4. 조선 후기

1 성리학의 변화

인조반정 이후 정국의 주도권을 잡은 서인은 의리 명분론을 강화하며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절대화함으로써 자신들의 학문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고 하였는데, 이는 송시열의 저술 등으로 뒷받침되었다.

반면,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상대화하고 6경과 제자백가 등에서 모순 해결의 사상적 기반을 찾으려는 경향도 17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되었다. [18] 는 유교 경전에 대하여 독자적인 해석을 하였으며, 사변록을 저술한 [19] 역시 양명학과 노장 사상의 영향을 받아 주자의 학설을 비판하였다. 이들은 주자의 학문 체계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당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서인(노론)의 공격을 받아 사문난적으로 몰렸다.

2 호락논쟁

18세기에 들어와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같은가 다른가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노론 내부에서 호락논쟁이 벌어졌다.

한원진 등 충청노론은 '인물성이론'을 주장하였으며, 이간, 김창흡 등 서울노론은 '인물성동론'을 주장하였다. 사람과 사물의 본성은 다르다고 본 충청노론(호론)은 청을 오랑캐로, 조선을 중화로 보려는 대의명분론이 깔려 있다. 서울노론(낙론)은 사람과 사물의 본성은 같다고 보았으며 이는 화이론을 극복하는 논리 체계를 제시하여 훗날 북학파 실학사상으로 계승되었다.

3 양명학

양명학은 명의 왕수인(왕양명)이 주창했던 새로운 유교 학설로 '심즉리', '지행합일', '치양지'를 내세워 성리학의 절대화와 형식화를 비판하며 실천성을 강조하였다.

양명학은 중종 때 소개되었으며 주로 서경덕 학파와 종친들 사이에서 점차 확산되어 갔다. 그러나

이황이 전습록변을 써 양명학을 비판한 것을 계기로 하여 몇몇 학자들에 의해 명맥만 유지되었다. 양명학은 17세기 후반 소론 학자들과 불우한 왕실 종친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수용되었다. 그 뒤, [20] 가 학문적 체계를 갖추면서 양명학은 사상계의 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는 "존언" 등의 저술에서 일반민을 도덕 실천의 주체로 상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반 신분제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18세기 초 정제두가 강화도로 옮겨 살면서 양명학 연구와 제자 양성에 힘써 강화학파(하곡학파)라 불리는 학파를 이루었다. 강화학파는 양명학을 바탕으로 역사학, 국어학, 서화, 문학 등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 갔으며, 실학자들과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5. 실학의 발달

1 초기 실학

이수광은 "지봉유설"을 저술하여 조선과 중국의 문화 전통을 폭넓게 정리하였다. 한백겸은 "동국지리지"를 저술하여 역사 지리 연구의 선구가 되었다.

이 밖의 초기 실학자로 허균, 유몽인, 김육, 허목 등이 있다. 허균은 '유재론'에서 신분제도와 적서차별을 비판하고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을 주장하였다. [21] 은 대동법의 확대 실시, 시헌력 도입 등에 기여하였다. [22] 은 "기언"에서 난전 금지, 부세의 완화, 호포제 실시 반대, 서얼허통 방지 등을 주장하였다.

2 중농실학

18세기 전반에 농업 중심의 개혁론을 제시한 실학자들은 대부분 서울 부근의 경기 지방에서 활약한 남인 출신이었다. 이들은 농촌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농민의 입장에서 토지 제도를 비롯한 각종 제도의 개혁을 추구하였다. 이 실학자들을 경세치용 학파라고도 한다.

1) 유형원

유형원은 일생 동안 농촌에 묻혀 살면서 학문 연구에 몰두하고 반계수록을 저술하였다. 이 책에서 유형원은 균전론(均田論)을 내세워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고, 양반 문벌제도, 과거 제도, 노비제도의 모순을 비판하였다.

2) 이익

농업 중심 개혁론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대표하는 사람은 18세기 전반에 주로 활약한 이익이었다. 그는 유형원의 실학사상을 계승, 발전시켰으며,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 [23] 를 형성하였다. 그는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 제도 개혁론으로 한전론(限田論)을 주장하고, 나라를 좀먹는 여섯 가지의 폐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3) 정약용

이익의 실학사상을 계승하면서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는 정약용이었다. 그는 18세기 말 정조 때 벼슬하였으나, 신유박해 때에 연루되어 전라도 강진에 유배되어 18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였다. 정약용은 지방 행정의 개혁에 대하여 쓴 목민심서, 중앙 행정의 개혁에 대하여 쓴 [24] 등을 비롯하여 500여 권의 저술을 남겼다. 그는 토지 제도의 개혁론으로 여전론을 처음에 내세웠다가 후에 정전제를 현실에 맞게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탕론' 등의 저술에서 백성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이 통치자라고 주장하면서 백성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정치 제도의 개선 방안도 모색하였다.

3 중상실학

18세기 후반에는 농업뿐만 아니라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을 주장하는 실학자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서울의 노론 집안 출신이 대부분이었으며, 청나라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부국강병과 이용후생에 힘쓰자고 주장하였으므로 이들을 이용후생 학파 또는 북학파라고도 한다.

[25] 은 우서를 저술하여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을 강조하고, 사농공상의 직업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하였다.

1) 홍대용

노론 명문 출신인 홍대용은 청에 왕래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임하경륜, [26] 등을 저술하였다. 그는 기술의 혁신과 문벌제도의 철폐, 그리고 성리학의 극복이 부국강병의 근본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관념을 비판하였다.

2) 박지원

박지원은 청에 다녀와 [27] 를 저술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강조하면서 수레와 선박의 이용, 화폐 유통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양반 문벌제도의 비생산성을 비판하였다. 또, 농업에서도 영농 방법의 혁신, 상업적 농업의 장려, 수리 시설의 확충 등을 통하여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과농소초"라는 농서를 저술하였는데, 이 책의 '한민명전의'라는 글에서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3) 박제가

양반 집안의 서자로 태어난 박제가는 청에 다녀온 후 [28] 를 저술하여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제창하였다. 그는 상공업의 발달, 청과의 통상 강화, 수레와 선박의 이용 등을 역설하였다. 또, 생산과 소비와의 관계를 우물물에 비유하면서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북학의 계승

19세기 전반에 활동한 서유구(서호수의 아들)는 농촌 생활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임원경제지를 저술하였으며, 전국 각지에 국가 시범 농장인 둔전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규경(이덕무의 손자)은 "오주연문장전산고"라는 백과사전을 편찬하였으며, [29] 는 "명남루총서"에서 천문학, 지리학, 의학, 농학 등 서양과학과 기술을 소개하였다.

정 답

01	경당	09	이제현	17	서인	25	유수원
02	임신서기석	10	이색	18	윤휴	26	의산문답
03	독서삼품과	11	양현고	19	박세당	27	열하일기
04	설총	12	섬학전	20	정제두	28	북학의
05	김대문	13	소수서원	21	김육	29	최한기
06	최치원	14	서경덕	22	허목		
07	문신월과법	15	조식	23	성호학파		
08	최충	16	동인	24	경세유표		

주제 04. 편찬사업, 과학기술

1. 고대

1 천문학

고구려에서는 별자리를 그린 천문도가 만들어졌고, 고분 벽화에도 별자리 그림을 남겼다. 백제는 역박사를 두었으며, 신라는 선덕여왕 때 첨성대를 세워 천문을 관측하였다.

통일 신라는 천문을 관측하는 천문박사(사천대 박사)를 두었으며, 시간을 측정하는 누각박사를 두었다.

2 금속 공예

백제의 금속 기술은 칠지도와 금동대향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칠지도는 표면에 금으로 새겨진 명문이 있다.

범종으로는 상원사 동종이 가장 오래된 것이고, 성덕대왕 신종은 표면의 비천상 조각과 아름다운 소리로 유명하다.

3 인쇄술

통일 신라에서는 목판 인쇄술이 크게 발달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된 [01] 이다. 이 두루마리 불경은 현존하는 것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다.

2. 고려

1 천문학

천문과 역법을 맡은 관청으로 사천대(서운관)가 설치되었고, 이곳의 관리들은 첨성대에서 관측 업무를 수행하였다.

고려 전기에는 신라 때부터 쓰기 시작하였던 당의 선명력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후기 충선왕 때는 원의 [02] 을 채용하고 그 이론과 계산법을 충분히 소화하였다.

2 의학

13세기에 대장도감에서 편찬된 [03] 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의학 서적으로 각종 질병에 대한 처방과 국산 약재 180여 종이 소개되어 있다.

3 인쇄술

고려는 일찍부터 활판 인쇄술의 개발에 힘을 기울였으며, 후기에는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1234년 금속 활자로 [04] 을 인쇄하였는데, 현재 전하지 않는다. 1377년(우왕 3)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한 직지심체요절이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 활자본으로,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4 농서와 화약 무기

고려 후기 이암은 원에서 [05] 라는 농서를 들여왔다. 이 책은 중국의 화북 지방의 농법을 정리한 것으로 조선 초기 농업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고려 말 최무선의 끈질긴 노력으로 화약 제조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1377년(우왕 3) 최무선의 건의로 [06] 을 설치하고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였다. 최무선은 이 화약무기를 이용하여 진포(금강 하구) 싸움에서 왜구를 크게 격퇴하였다.

3. 조선 전기

1 지도와 지리서

태종 때에는 세계 지도인 [07] 가 만들어졌다. 지금 남아 있는 세계 지도 중 동양에서는 가장 오래 된 것이다. 이 지도에는 중국과 조선을 크게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 등도 묘사되어 있다.

15세기 지도로 팔도도(태종, 세종)와 동국지도(세조)가 있다. 16세기에도 많은 지도가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 명종 때 제작된 [08] 가 현존하고 있다.

지리지의 편찬도 추진되어 세종 때 신찬팔도지리지, 성종 때 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되었다. 동국여지승람에는 군현의 연혁, 지세, 인물, 풍속, 산물, 교통 등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중종 때 동국여지승람을 보완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되었다.

2 윤리서와 의례서, 법전

세종 때에는 모범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열녀 등의 행적을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을 붙여 윤리서인 [09] 를 편찬하였다.

성종 때에는 국가의 여러 행사에 필요한 의례를 정비하여 의례서인 [10] 를 편찬하였다.

16세기에는 사림이 소학과 주자가례의 보급과 실천에 힘쓰면서 이륜행실도와 동몽수지 등을 간행하여 보급하였다. 이륜행실도는 연장자와 연소자, 친구 사이에서 지켜야 할 윤리를 강조한 책이며, 동몽수지는 어린이가 지켜야 할 예절을 기록한 윤리서이다.

조선 초부터 왕실의 혼사, 장례, 궁중의 잔치 등 주요 행사가 있을 때 "의궤"를 만들었다. 왜란 이전의 의궤는 소실되어 현재 전하지 않고, 그 이후의 것만 전하고 있다.

조선 초의 법전으로 정도전의 조선경국전, 경제문감 그리고 조준의 "경제육전"이 있다. 특히 [11] 은 조선 최초의 관찬 법전이다.

경국대전은 세조 때 편찬이 시작되어 성종 때 완성되었다. 6전(이, 호, 예, 병, 형, 공전)으로 구성된 경국대전은 조선 법률 체계의 골격을 이루었다.

3 과학기구

세종 때 천체 관측 기구로 혼의·간의를 제작하였으며, 시간 측정 기구로 자격루(물시계), 앙부일구(해시계)를 제작하였다.

또 세계 최초로 [12] 를 만들어 전국 각지의 강우량을 측정하였고, 세조 때에는 토지 측량 기구인 인지의와 규형을 제작하여 토지 측량과 지도 제작에 활용하였다.

4 천문학

태조 때에는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13] 를 제작하여 돌에 새겼다.

천문학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역법이 마련되었다. 세종 때 만든 [14] 은 중국의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고로 하여 만든 역법서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다.

5 의학

의학에서도 우리 풍토에 알맞은 약재와 치료 방법을 개발, 정리하여 세종 때 [15] 을 편찬하고, [16] 라는 의학 백과사전을 간행하였다.

이 밖에 세종 때 향약채취월령을 지어 수백 종의 국산 약재를 소개하였다.

6 인쇄술

태종 때에는 [17] 를 설치하고 구리로 계미자를 주조하였다. 이어서 세종 때에는 갑인자를 주조하였는데, 이는 글자 모습이 아름답고 인쇄에 편리하게 만들어졌다.

세종 때에는 인쇄 기술이 더욱 발전하였다. 종전에는 밀랍으로 활자를 고정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이제는 밀랍 대신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을 창안하여 종전보다 두 배 정도의 인쇄 능률을 올리게 되었다.

종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관청으로 조지소(후에 조지서)를 설치하였다.

6 농서, 병서와 무기 제조

세종 때에 정초 등이 편찬한 [18] 은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최초의 농서로서, 중국의 농업 기술을 수용하면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농법을 정리하였다. 성종 때 강희맹은 금양(시흥) 지방을 중심으로 한 경기 지방의 농사법을 정리하여 [19] 을 편찬하였다.

세종 때 군기감에서 화약 무기의 제조와 사용 방법을 정리하여 총통등록을 편찬하였다.

문종 때 김종서 등이 우리나라의 역대 전쟁사를 정리하여 [20] 을 간행하였으며, 성종 때 진법(후에 병장도설)을 편찬하여 군사 훈련 지침서로 사용되었다.

최해산(최무선의 아들)은 태종 때 화약과 화차, 완구 등의 무기 제조에 공헌하였다.

4. 조선 후기

1 지도와 지리서

역사 지리서로는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정약용의 [21] 등이 나왔고, 인문 지리서로는 이중환의 택리지가 편찬되었다.

중국으로부터 곤여만국전도 등 서양식 지도가 전해짐에 따라 정밀하고 과학적인 지도가 많이 제작되었다. 정상기의 [22] 는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과학적인 지도 제작에 공헌하였다. 김정호의 [23] 는 산맥, 하천, 포구, 도로망의 표시가 정밀해지고, 거리를 알 수 있도록 10리마다 눈금이 표시되었으며, 목판으로 인쇄되었다.

2 금석학, 언어 연구, 백과사전

금석학 분야에서는 김정희가 금석과안록을 지어 북한산비와 황초령비 등 진흥왕 순수비를 소개하였다.

훈민정음에 관한 연구서로 신경준의 [24] 와 유희의 언문지 등이 나왔고, 이의봉은 우리의 방언과 해외 언어를 정리한 고금석림을 편찬하였다.

실학이 발달하고 문화 인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유서(類書)로 불린 백과사전류 저서가 많이 편찬되었다. 지봉유설(이수광), 성호사설(이익), 청장관전서(이덕무), 임원경제지(서유구), 오주연문장전산고(이규경) 등이 편찬되었다.

한편 영조 때 편찬된 [25] 는 우리나라의 역대 문물을 정리한 한국학 백과사전이다.

3 서양 문물의 수용

선조 때 이광정이 세계 지도인 [26] 를 가져왔고, 인조 때 정두원은 화포, 천리경, 자명종 등을 가져와 소개했다.

17세기에 표류해 온 네덜란드인 벨테브레이와 하멜 일행은 조선에 서양 문물을 전했다. 인조 때 표류해 온 벨테브레이는 훈련도감에 배속되어 서양식 대포의 제조법과 조작법을 조선군에 가르쳤다. 효종 때 표류해 온 하멜은 네덜란드로 돌아간 뒤 "하멜 표류기"를 발표하여 조선의 지리와 풍속을 유럽에 소개하였다.

4 천문학

천문학은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아 크게 발전하였다. [27] 은 역학도해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지전설을 주장하여 우주관을 크게 전환시켰다. 그 후 홍대용도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홍대용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무한 우주론을 내놓았다.

19세기 중엽 최한기는 지구전요에서 코페르니쿠스의 지구 자전과 공전설 등 서양 과학을 소개하였다.

효종 때 김육 등의 노력으로 서양 선교사 아담 샬이 만든 [28] 이 도입되었다.

한편 [29] 은 천문 관측기구인 혼천의를 직접 제작하고, 동서양의 수학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주해수용을 저술하였다.

5 의학

광해군 때 허준은 [30] 을 저술하여 의학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이 책은 우리의 전통 한의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간행되어 뛰어난 의학서로 인정되었다. 허준과 같은 시기에 허임은 침구경험방을 저술하여 침구술을 집대성하였다.

정약용은 마진(홍역)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키고 이 분야의 의서를 종합하여 [31] 을 편찬하였으며, 박제가와 함께 종두법을 연구하여 실험하기도 하였다.

19세기에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을 저술하여 사상 의학을 확립하였다.

6 농서, 기타

17세기 중엽 신속은 농사직설, 사시찬요, 금양잡록 등을 합쳐 [32] 을 편찬하였다. 그 밖의 농서로 색경(박세당), 산림경제(홍만선), 과농소초(박지원), 해동농서(서호수) 등이 있다.

서유구(서호수의 아들)는 [33] 라는 농촌 생활 백과사전을 편찬하였다.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을 확신하고 기술의 개발에 앞장섰던 사람은 [34] 이었다. 그는 "기예론"에서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 것은 기술 때문이라고 보고, 기술의 발달이 인간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스스로 많은 기계를 제작하거나 설계하였다. 그는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만들었는데, 이 거중기는 수원 화성을 쌓을 때 사용되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를 줄이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또 정조가 수원에 행차할 때 한강을 안전하게 건너도록 배다리도 설계하였다.

정약전(정약용의 형)은 흑산도에 유배 중에 해양 생물을 정리하여 자산어보를 저술하였다.

정 답

01	무구정광대다라니경	10	국조오례의	19	금양잡록	28	시헌력
02	수시력	11	경제육전	20	동국병감	29	홍대용
03	향약구급방	12	측우기	21	아방강역고	30	동의보감
04	상정고금예문	13	천상열차분야지도	22	동국지도	31	마과회통
05	농상집요	14	칠정산	23	대동여지도	32	농가집성
06	화통도감	15	향약집성방	24	훈민정음운해	33	임원경제지
07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16	의방유취	25	동국문헌비고	34	정약용
08	조선방역지도	17	주자소	26	곤여만국전도		
09	삼강행실도	18	농사직설	27	김석문		

주제 05. 도교와 풍수리지설, 고분

1. 도교

1 고대

삼국 시대 도교는 산천 숭배나 신선 사상과 결합하여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성행하였다.

고구려 벽화의 신선 그림이나 사신도를 통해 도교가 전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류왕 때 당 고조가 "도덕경"과 함께 도사를 보내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보장왕 때 [01] 은 불교와 연결된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도교를 장려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승려 보덕은 백제로 망명하여 열반종을 개창하였다.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은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담고 있으며, 백제 금동대향로는 신선들이 사는 이상 세계를 형상으로 표현하였다. 무령왕릉 매지권도 도교적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택지적 비문을 통해 백제 귀족이 노장 사상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고려

불로장생과 현세의 구복을 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교는 여러 가지 신을 모시면서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빌며 나라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였다. 이를 위하여 도교 행사가 자주 베풀어졌고, 궁중에서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초제가 성행하였다. 예종 때 도교 사원으로 [02] 이 건립되었다.

국가적으로 이름난 명산대천에 제사 지내는 [03] 는 도교와 민간 신앙 및 불교가 어우러진 행사였다.

3 조선

조선 시대에 와서 도교 위축되어 사원이 정리되고 행사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제천 행사가 국가의 권위를 높이는 점이 인정되어 [04] 를 설치하고, 마니산 참성단에서 일월성신에 대하여 제사를 지내는 초제가 시행되었다.

중종 때 조광조의 건의로 소격서가 혁파되고 도교 행사는 폐지되었다.

2. 풍수지리설

1 고대

신라 말 도선과 같은 선종 승려들은 중국에서 풍수지리설을 들여왔다. 풍수지리설은 산세와 수세를 살펴 도읍, 주택, 묘지 등을 선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풍수지리설은 경주 중심의 지리 개념에서 벗어나 다른 지방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풍수지리설은 호족의 근거지를 길지·명당으로 합리화하고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2 고려

풍수지리설은 미래의 길흉화복을 예언하는 도참사상이 더해져 고려 시대에 크게 유행하였다. 고려 초기에는 개경과 서경이 명당이라는 설이 유포되어 서경 천도와 북진 정책 추진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고려 중기에는 북진 정책의 퇴조와 함께 새로이 한양 명당설이 대두하였다. [05] 은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시켰으며, 숙종은 김위제의 건의에 따라 남경에 궁궐을 건립하였다.

고려 말 공민왕과 우왕은 한양 명당설에 따라 몇 차례 한양 천도를 시도하였다.

3 조선

풍수지리설과 도참사상이 조선 초 한양 천도에 반영되었으며, 명당 선호 문화가 확산되어 양반 사대부의 묘지 선정에도 활용되었다. 명당에 조상의 시신을 모시려는 풍조가 늘어나 산송(山訟)이 자주 발생하기도 하였다.

3. 고분

1 고구려

고구려는 초기에 주로 돌무지무덤을 만들었으나, 점차 굴식 돌방무덤으로 바꾸어 갔다. 돌을 정밀하게 쌓아올린 돌무지무덤은 만주의 집안(지안) 일대에 1만 2,000여 기가 무리를 이루고 있다.

다듬은 돌을 계단식으로 7층까지 쌓아올린 장군총이 대표적인 무덤이다.
평양 천도 이후에는 굴식 돌방무덤이 많이 만들어졌다. 굴식 돌방무덤은 돌로 널방을 짜고 그 위에 흙으로 덮어 봉분을 만든 것이다. 널방의 벽과 천장에는 벽화를 그리기도 하였다. 이런 무덤은 만주 집안, 평안도 용강, 황해도 안악 등지에 널려 있다.

2 백제

백제는 한강 유역에 있던 초기 한성시기에 계단식 돌무지무덤을 만들었는데, 서울 석촌동에 일부가 남아 있다. 이것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백제 건국의 주도 세력이 고구려와 같은 계통이라는 건국 이야기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웅진 시기의 고분은 굴식 돌방무덤 또는 널방을 벽돌로 쌓은 벽돌무덤으로 바뀌었다. 벽돌무덤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완전한 형태로 발견된 무령왕릉(송산리 7호분)이 유명하다. 무령왕릉에서는 금관 장식과 진묘수 등 공예품과 함께 [06] 이 출토되어 무덤의 주인공과 축조 연대가 밝혀졌다.
사비 시기의 고분은 규모가 작지만, 세련된 굴식 돌방무덤을 만들었다. 백제의 굴식 돌방무덤과 벽돌무덤에도 벽과 천장에 사신도와 같은 그림을 그려 넣기도 하였다.

3 신라

신라는 거대한 돌무지덧널무덤을 많이 만들었는데, 나무로 곽을 짜고 그 위에 돌을 쌓은 양식이므로 벽화가 없다. 돌무지덧널무덤은 도굴이 어려워 여러 가지 껴묻거리가 남아 있는데, 천마총, 서봉총 등이 있다.
통일 신라 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이 유행하였고, 고분 양식도 거대한 돌무지덧널무덤에서 점차 규모가 작은 [07] 무덤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무덤의 봉토 주위를 둘레돌로 두르고, 그 둘레돌에 12지 신상을 조각하는 신라만의 독특한 양식이 새롭게 나타났다.

4 발해

정혜공주 묘(돈화현 육정산 고분)는 굴식 돌방무덤으로 [08] 천장 구조가 고구려 고분과 닮았다. 이곳에서 나온 돌사자상은 매우 힘차고 생동감이 있다.
정효공주 묘(화룡현 용두산 고분)는 벽돌로 무덤 벽을 쌓는 당나라 양식과 평행고임 방식으로 천장을 쌓는 고구려 양식이 혼합되어 있다. 정효공주 묘에서는 세련된 문장의 묘지와 12명의 인물 벽화가 발굴되었다.

정 답

01	연개소문	03	팔관회	05	문종	07	굴식 돌방
02	복원궁	04	소격서	06	지석	08	모줄임

주제 06. 건축, 도성구조와 궁궐

1. 고대

1 불교 건축물

백제 무왕 때 건립된 익산의 미륵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사찰이었다. 중앙에 목탑을 세우고 동서에 석탑을 세웠는데, 지금은 서탑의 일부만 남아 있다.

통일 신라 시대의 불교 건축물로는 불국사와 석굴암이 유명하다. 경덕왕 때 재상 김대성이 지었다고 알려진 불국사는 불국토의 이상을 조화와 균형 감각으로 표현한 사원이다. 석굴암은 화강암을 이용해 축조한 인공 석굴 사원으로 네모난 전실과 둥근 주실을 갖추고 있다.

2 도성 구조와 궁궐 건축

고구려는 유리왕 때 졸본(오녀산성)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하였다. 이 시기 고구려는 평지성인 국내성 인근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 환도산성을 쌓았다.

장수왕 때 고구려는 평양으로 천도하고 안학궁과 대성산성을 건설하였다. 그 후 장안성을 새로 축조하고 평원왕 때 천도하였다. 장안성은 평지성과 산성의 특성을 모두 갖춘 구조로 북성·내성·중성·외성으로 구성되었다.

풍납토성, 몽촌토성은 백제 초기의 도성 유적으로 보인다. 백제는 5세기 말 웅진으로 천도하고 6세기 성왕 때 사비로 다시 천도하였다. 사비 도성은 도성 전체를 나성으로 둘렀으며, 도성의 북쪽에 방어용으로 부소산성을 쌓았다.

신라는 월성이 왕성 역할을 했으며 그 주변의 산성을 쌓아 왕경 방어를 맡았다.

발해는 당의 수도인 장안성을 모방하여 상경성을 건설하였다. 상경성은 외성과 내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작대로를 기준으로 조방(구획)을 나누었다.

2. 고려

1 불교 건축물

13세기 이후에 지은 주심포식 건물들이 일부 남아 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가장 오래 된 건물로 알려져 있고, 영주 [01] 은 주심포 양식에다 배흘림기둥, 팔작지붕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이 밖에 예산 수덕사 대웅전이 있다.

고려 말에는 공포를 기둥뿐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설치한 다포식 건물도 등장하여 조선 시대 건축에 큰 영향을 끼쳤다. 황해도 사리원의 성불사 응진전이 대표적인 다포식 건물이다.

2 도성과 궁궐

고려 시대 수도는 개경이었다. 수창궁이 있었던 개성 만월대의 궁궐터가 남아 있다. 만월대는 경사진 곳에 축대를 높이 쌓고 계단식으로 건물을 배치하여 웅장하게 보이도록 하였다.

고려는 몽골 침입 때 강화(강도)로 천도하였다. 강화는 조석 간만의 차가 크고 조류가 빨라 공격이 쉽지 않은 곳이었으며, 수도인 개경과 가깝고 지방과의 연결 및 조운 등이 편리한 곳이었다. 이곳에서 38년 동안 항전하였으며, 1270년 원종 때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3. 조선 전기

1 서원과 사찰(절)

15세기 불교 건축물로 해인사 장경판전과 강진 [02] 이 있다. 해인사 장경판전은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곳으로, 원활한 통풍과 습도, 온도 조절을 위해 창의 크기를 다르게 하였다.

16세기에 들어와 사림의 진출과 함께 서원의 건축이 활발해졌다. 서원은 교육 공간인 강당을 중심으로 사당과 기숙 시설인 동재와 서재를 갖추었다. 서원 건축은 가람 배치 양식과 주택 양식이 실용적으로 결합된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녔다. 대표적인 서원으로는 경주의 옥산 서원과 안동의 도산 서원이 있다.

2 한양 도성과 궁궐

조선은 건국 후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고 정도전의 주도하에 도성을 건설하였다. 1395년 경복궁을 창건하고 그 둘레에 도성을 축조하고 4개의 대문과 4개의 소문을 건설하였다. 4대문의 이름은 흥인문(동), 돈의문(서), 숭례문(남), 숙정문(북)이라 했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앞에는 의정부와 주요 관아를 배치하여 육조거리로 불렸다. 도성에서 10리까지는 성저십리라고 하여 개인의 무덤을 쓰거나 벌목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조선은 이른바 양궐체제로 궁궐을 운영하였다. 조선 왕조의 법궁(정궁)인 경복궁, 화재 같은 사고에 대비해 태종 때 [03] , 성종 때 창경궁을 창건하였다.

경복궁의 동쪽에는 역대 왕의 신주를 모신 종묘를 건립하고, 서쪽에는 토지신에 제사하는 사직단을 배치하였다.

4. 조선 후기

1 불교 건축물

17세기의 불교 건축으로는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 [04] 등이 있다. 이것들은 모두 규모가 큰 다층 건물로 내부는 하나로 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불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반 지주층의 경제적 성장을 반영하고 있다.

18세기에는 사회적으로 크게 부상한 부농과 상인의 지원을 받아 그들의 근거지에 장식성이 강한 사원이 많이 세워졌다. 논산 쌍계사, 부안 개암사, 안성 석남사 같은 사원이 대표적이다.

2 궁궐과 화성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등 주요 궁궐은 임진왜란 때 모두 소실되었다. [05] 은 광해군 때 다시 지어졌는데 조선 후기에는 법궁(정궁) 역할을 하였다. 경희궁은 광해군 때 건립되었는데, 원래 명칭은 경덕궁이었으나 영조 때 경희궁으로 개칭되었다.

덕수궁은 처음 월산대군의 집터였던 곳을 선조가 임시 거처로 사용하여 정릉동 행궁으로 불리다가 광해군 때 경운궁으로 개칭되었다. 경운궁은 대한제국 시기 정궁이었으며, 1907년 순종에게 양위한 고종이 이곳에 머무르게 되면서 덕수궁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1910년 근대 건축물(르네상스 양식)인 석조전이 완공되었다.

정조 때의 문화적인 역량을 집약시켜 만든 화성은 이전의 성곽과는 달리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을 겸한 성곽 시설로, 주위의 경치와 조화를 이루며 평상시의 생활과 경제적 터전까지 조화시킨 종합적인 도시 계획 아래 건설되었다.

정 답

01 부석사 무량수전
02 무위사 극락보전
03 창덕궁
04 법주사 팔상전
05 창덕궁

주제 07. 불교예술(탑, 불상, 대장경)

1. 고대

1 탑

백제의 [01] 은 서탑만 일부가 남아 있는데, 목탑의 모습을 많이 지니고 있다.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백제의 대표적인 석탑으로 안정되면서도 경쾌한 모습으로 유명하다.

신라의 탑으로는 황룡사 9층 목탑과 분황사탑이 있다. 분황사탑은 석재를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 쌓은 탑으로 지금은 3층까지만 남아 있다.

통일 신라의 석탑은 이중 기단 위에 3층으로 몸체를 세우는 양식이 유행하였다. 신문왕 때 건립된 감은사지 3층 석탑은 장중하고 웅대한 모습으로 삼국 통일을 달성한 기상을 반영하고 있다. 석가탑(불국사 3층 석탑)은 통일 이후 축조해 온 통일 신라 석탑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 탑의 맞은편에 정교하고 섬세하며 화려함을 뽐내는 다보탑이 있다.

신라 말기에는 석탑에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은 기단과 탑신에 부조로 불상들을 새겨 넣었다.

신라 말기에 선종이 널리 퍼지면서 승려들의 사리를 봉안하는 승탑과 탑비가 유행하였다.

발해의 탑으로 [02] 이 남아 있는데, 5층의 벽돌탑 아래에 묘실을 축조하였다.

2 불상과 석조물

고구려의 연가 7년명 금동 여래 입상은 두꺼운 의상과 긴 얼굴 모습에서 북조 양식을 따르고 있으나, 강인한 인상과 은은한 미소에는 고구려의 독창성이 보인다.

백제의 서산 마애삼존불은 부드러운 자태와 온화한 미소로 자비와 포용의 태도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신라의 경주 배리 석불 입상도 푸근한 자태와 부드럽고 은은한 미소를 띠고 있는데, 신라 조각의 정수를 보여 주고 있다.

삼국 시대의 불상 조각에서 두드러진 것은 미륵보살 반가상을 많이 제작한 점이다. 이 중에서도 탑 모양의 관을 쓰고 있는 금동 미륵보살 반가상은 날씬한 몸매와 그윽한 미소로 유명하다. 삼산관(三山冠)을 쓰고 있는 금동 미륵보살 반가상도 부드러운 몸매와 자애로운 미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통일 신라 시대에 들어와 균형미가 뛰어난 불상들이 만들어졌다. 이 시기 조각의 최고 경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석굴암의 본존불과 보살상들이다.

발해의 수도 상경과 동경의 절터에서는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것으로 여겨지는 [03] 이 발굴되었다. 이 불상은 흙을 구워 만든 것으로, 두 분의 부처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통일 신라의 석조물로 법주사 쌍사자 석등이 있고, 발해의 석조물로는 상경에 남아 있는 석등이 있다.

2. 고려

1 탑

고려 시대의 석탑은 신라 양식을 일부 계승하면서 그 위에 독자적인 조형 감각을 가미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다각 다층탑이 많았고, 안정감은 부족하나 자연스러운 모습을 띠었다. 개성 불일사 5층 석탑과 오대산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이 유명하며, 고려 후기의 [04] 은 원의 석탑을 본뜬 것으로 조선 시대 원각사지 10층 석탑의 원형이 되었다.

승탑은 고달사지 승탑과 같이 신라 후기 승탑의 전형적인 형태인 팔각원당형을 계승한 것이 많았고, 특이한 형태를 띠면서 조형미가 뛰어난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 등도 만들어졌다.

2 불상

고려 시대의 불상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독특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신라 이래의 조형 전통을 계승하는 작품으로는 부석사 소조 여래 좌상이 있다.

고려 초기에는 광주 춘궁리 철불과 같은 대형 철불이 많이 조성되어 시대적 특징을 이루었다. 그리고 논산의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나 안동의 이천동 석불처럼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목에 지역 특색이 잘 드러난 거대한 불상들이 건립되기도 하였다.

3 대장경

현종 때 거란의 침입을 받았던 고려는 부처의 힘을 빌려 이를 물리치려고 대장경을 간행하였다. 70여 년의 오랜 기간에 걸쳐 목판에 새겨 간행한 이 초조대장경은 대구 부인사에 보관하였는데, 몽골 침입 때에 불타 버리고 인쇄본 일부가 전하고 있다.

그 후 의천은 고려는 물론 송, 요 등의 대장경 주석서를 모아 [05] 을 편찬하였다. 이를 위하여 목록인 신편제종교장총록을 만들고, 교장도감을 설치하여 10여 년에 걸쳐 4,700여 권의 전적을 간행하였다.

몽골의 침입으로 소실된 초조대장경을 대신하여 고종 때에는 대장경을 다시 만들었다. [06] 을 설치하여 16년 만에 이룩한 재조대장경(팔만대장경)은 현재 합천 해인사에 보존되어 있다.

정 답

01	미륵사지 석탑	**03**	이불병좌상	**05**	교장
02	영광탑	**04**	경천사 10층 석탑	**06**	대장도감

주제 08. 문화예술

1. 고대

1 그림과 글씨

천마총에서 발견된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라 말다래에 그려진 그림이다. 화가로는 황룡사 벽에 소나무 그림을 그린 솔거가 있고, 서예가로는 신라의 김생이 질박하고 굳센 서체로 유명하다.

2 문학과 음악

삼국 시대의 문학 작품으로 고구려 유리왕의 '황조가', 을지문덕의 '여수장우중문시'가 삼국사기에 전하고, 백제의 '정읍사'가 악학궤범에 수록되어 현재 전한다.

신라에서는 화랑과 승려들이 향가를 지어 불렀는데, 삼국유사에 14수가 전하고 있다. 9세기 후반 진성여왕 때 [01] 이라는 향가집이 편찬되었으나, 지금은 전하지 않고 있다.

삼국 시대의 음악가로는 신라의 백결선생, 고구려의 왕산악, 가야의 우륵이 있다. 그 중 우륵은 대가야인으로 신라에 귀화하여 가야금을 전하였다.

3 일본으로의 문화전파

삼국 중에서 백제가 일본의 고대 문화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4세기에 아직기는 일본의 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쳤고, 뒤이어 일본에 건너간 왕인은 천자문과 논어를 전하고 가르쳤다. 무령왕 때 단양이와 고안무가 유학을 전해주었으며, 성왕 때 [02] 가 불경과 불상을 전하였다.

고구려도 일본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03] 은 종이와 먹의 제조 방법을 전하였고, 호류사의 벽화를 그렸다고 전해지고 있다. 혜자는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으며, 혜관은 삼론종을 전해 주었다. 일본 나라 시에서 발견된 다카마쓰 고분 벽화가 고구려 수산리 고분 벽화와 흡사한 점에서 고구려의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다.

신라는 배 만드는 기술과 제방 쌓는 기술을 전해 주어 '한인의 연못'이라는 이름까지 생기게 되었다.

이처럼 삼국의 문화는 야마토 조정의 성립과 [04] 문화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가야도 철기와 토기 제작 기술을 전해 주어 일본의 스에키 토기에 영향을 주었다.

통일 신라의 불교 및 유교 문화가 일본에 전해져 [05] 문화의 성립에 기여하였다. 통일 신라 승려 심상은 일본에 건너가 일본 화엄종을 성립시켰다.

발해도 역법, 불경, 음악 등을 일본에 전하여 일본 문화 발전에 기여하였다.

2. 고려

1 그림과 서예

고려 전기의 화가로는 예성강도를 그린 이령과 그의 아들 이광필이 있었으나, 그들의 그림은 전하지 않는다. 고려 후기 공민왕이 그렸다는 [06] 가 있어 당시의 그림에 원대 북화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고려 후기에는 왕실과 권문세족의 구복적 요구에 따라 불화가 많이 그려졌다. 일본에 있는 혜허가 그린 관음보살도가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밖에 사찰과 고분의 벽화가 일부 남아 있는데, 부석사 조사당 벽화의 사천왕상과 보살상이 유명하다.

서예는 고려 전기에는 구양순체가 주류를 이루었고, 후기에는 송설체(조맹부체)가 유행하였다.

2 공예

고려자기는 신라와 발해의 전통과 기술을 토대로 송의 자기 기술을 받아들여 귀족 사회의 전성기인 11세기에 독자적인 경지를 개척하였다. 자기 중에서 가장 이름난 것은 비취색이 나는 청자인데, 중국인들도 천하의 명품으로 손꼽았다.

12세기 중엽에 고려의 독창적 기법인 상감법이 개발되어 자기에 활용되었다. 상감청자는 무늬를 훨씬 다양하고 화려하게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청자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 상감청자는 강화도에 도읍한 13세기 중엽까지 주류를 이루었으나, 원 간섭기 이후에는 퇴조해 갔다.

3 문학

무신의 집권으로 좌절감에 빠진 문신들은 낭만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경향을 띤 수필 형식의 책들을 펴냈다. 임춘은 국순전에서 술을 의인화하여 현실을 풍자하였고, 이인로는 역대 문인들의 명시들에 얽힌 이야기를 담은 파한집을 저술하였다.

최씨 정권 시대에는 이규보, 최자, 진화 등의 문인이 활약하였다. [07] 는 동국이상국집, 최자는 보한집이라는 문집을 남겼다. 진화는 고려가 문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자부심을 담은 한시를 지었다.

고려 후기에 신진 사대부들은 향가 형식을 계승하여 새로운 시가인 [08] 를 창작하였다. 한림별곡, 관동별곡 등의 작품들은 주로 유교 정신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

민간에 구전되는 이야기를 일부 고쳐 한문으로 기록한 패관 문학이 유행하였는데, 이규보의 백운소설과 이제현의 [09] 이 대표작이다.

한편, 민중 사회에서는 작가가 알려지지 않은 장가 혹은 속요라는 가요가 유행하였다. 청산별곡, 가시리, 쌍화점 등 많은 작품이 있다.

4 음악

아악은 송에서 수입된 대성악이 궁중 음악으로 발전된 것으로, 주로 제사 등 국가 행사에 쓰였다.

속악이라고도 하는 향악은 우리의 고유 음악이 당악의 영향을 받아 발달한 것인데, 동동, 한림별곡, 대동강 등의 곡이 전하고 있다.

3. 조선 전기

1 그림과 서예

세종 때 화원 출신인 안견은 [10] 라는 작품을 남겼다.

문인 화가인 강희안은 시적 정서가 흐르는 낭만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다. 그의 대표작으로 [11] 가 있다. 진취적인 시대 분위기를 반영한 15세기 조선 미술은 일본 무로마치 미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16세기에는 선비들의 정신세계를 표현한 사군자화가 많이 그려졌다. 황집중은 포도를, 이정은 대나무를, 어몽룡은 매화를 잘 그렸는데, 이들은 고매한 정신세계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노비 출신으로 화원에 발탁된 이상좌는 [12] 라는 걸작을 남겼다. 또 신사임당은 풀과 벌레를 소박하고 섬세하게 그려 여성의 심정을 잘 나타내었다.

서예로는 안평대군이 송설체로 유명하였고, 한호는 석봉체를 완성하였다.

2 공예

분청사기는 청자에 백토의 분을 칠한 것으로, 백색의 분과 안료로써 무늬를 만들어 장식하였다.

이러한 분청사기는 안정된 그릇 모양과 소박하고 천진스러운 무늬가 어우러져 정형화되지 않으면서 구김살 없는 우리의 멋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분청사기는 16세기부터 세련된 백자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면서 점차 그 생산이 줄어들었다.

백자는 청자보다 깨끗하고 담백하며 순백의 고상함을 풍겨서 선비들의 취향과 어울렸기 때문에 널리 이용되었다.

3 문학

서거정은 삼국 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의 시와 산문 중에서 빼어난 것을 골라 [13] 을 편찬하고 우리나라의 글에 대한 자주 의식을 나타내었다.

조선 초기 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일정한 격식 없이 보고 들은 이야기를 적은 설화 문학이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서거정의 [14] 와 성현의 용재총화 등이 있다.

이 시기의 한문 소설로 김시습이 지은 금오신화가 있다. 금오신화는 평양, 개성, 경주 등 옛 도읍지를 배경으로 남녀 간의 사랑과 불의에 대한 비판 등 민중의 생활 감정과 역사의식을 담고 있다.

16세기에 이르러 사림 문학이 주류가 되면서 한시와 시조, 가사 분야가 활기를 띠었다.

시조에서는 황진이와 윤선도의 작품이 유명하다. 가사 문학에서는 송순, 정철, 박인로의 작품이 뛰어났다. 정철은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같은 작품에서 풍부한 우리말의 어휘를 마음껏 구사하여 관동 지방의 아름다운 경치와 왕에 대한 충성심을 읊은 것으로 유명하다.

조선 중기에 사림 문학의 테두리를 벗어난 문인으로는 어숙권과 임제를 꼽을 수 있다. 서얼 출신의 어숙권은 [15] 를 지어 문벌제도와 적서 차별의 폐단을 폭로하기도 하였고, 임제는 풍자적이고 우의적인 시와 산문을 써서 당시 사회의 모순과 유학자들의 존화 의식을 비판하였다.

4 음악

세종 때 박연은 아악을 체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세종 자신도 여민락 등의 악곡을 짓고, 소리의 장단과 높낮이를 표현할 수 있는 [16] 를 창안하였다.

성종 때 성현은 [17] 을 편찬하였다. 이 책은 음악의 원리와 역사, 악기, 무용, 의상 및 소도구까지 망라하여 정리하였다.

4. 조선 후기

1 서민 문화의 발달

조선 후기에는 서당 교육이 보급되고, 서민의 경제적 신분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서민 문화가 대두하였다. 역관이나 서리 등의 중인층 및 상공업 계층과 부농층의 문예 활동이 활발해졌고, 상민이나 광대들의 활동도 활기를 띠었다.

조선 후기 서민 문화의 대표적인 장르로는 한글소설, 사설시조, 판소리와 탈춤, 민화 등이 있다.

2 문학

문학의 저변이 서민층에까지 확대되면서 한글 소설과 사설시조가 널리 유행하였다. 한글 소설 작품으로 홍길동전, 춘향전 등이 있다.

양반층이 중심이 된 한문학도 실학의 유행과 함께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을 예리하게 비판하였다. 정약용은 삼정의 문란을 폭로하는 한시를 남겼고, 박지원은 양반전, 허생전, 호질, 민옹전 등의 한문소설을 써서 양반 사회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실용적 태도를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현실을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문체로 혁신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중인과 서얼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중인층의 문학 활동이 활발해졌다. 그들은 시사(詩社)를 결성하고, 시집을 발간하는 등 양반 못지않은 활발한 문학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위항문학이라고도 하였다.

3 음악과 공연 문화

판소리는 소리꾼과 고수가 창과 사설로 이야기를 엮어 가는 전통 음악의 하나로 조선 후기 서민 문화의 중심이 되었다. 19세기 후반 신재효가 판소리를 여섯 마당으로 정리하였다.

탈춤과 산대놀이 등 가면극도 서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황해도의 봉산탈춤, 안동의 하회탈춤, 양주의 별산대놀이, 함경도의 북청 사자춤 등이 유명했다.

직업적인 광대나 기생들은 판소리, 산조와 잡가 등을 창작하여 발전시켰다.

4 그림과 서예

진경산수화는 중국 남종과 북종 화법을 고루 수용하여 우리의 고유한 자연과 풍속에 맞춘 새로운 화법으로 창안한 것이었다. 진경산수화는 18세기에 정선에 의해 개척되었다. 그는 서울 근교와 강원도의 명승지들을 두루 답사하여 그것들을 사실적으로 그려 냈다.

그 후 산수화와 풍속화에 새 경지를 열어 놓은 화가는 [18] 였다. 그는 산수화, 기록화, 신선도 등을 많이 그렸지만, 정감어린 풍속화를 그린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밭갈이, 추수, 씨름, 서당 등에서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소탈하고 익살스러운 필치로 묘사하였다.

김홍도에 버금가는 풍속화가로 [19] 이 있었다. 그는 주로 양반들과 부녀자들의 생활과 유흥, 남녀 사이의 애정 등을 감각적이고 해학적으로 묘사하였다.

이 밖에 문인화가 강세황은 영통골입구도 등에서 서양 수채화 기법을 동양화와 접목시켜 사물을 실감나게 표현하였다.

19세기의 화가로는 '세한도'를 남긴 김정희와 강렬한 필법과 채색법으로 다양한 작품을 남긴 장승업이 있다.

조선 후기에는 민중의 미적 감각을 잘 나타낸 민화가 유행하였다. 해, 달, 나무, 꽃, 동물, 물고기 등을 소재로 삼아 소원을 기원하고 생활공간을 장식하였다.

서예 분야에서는 이광사의 [20] 와 김정희의 추사체가 유명했다.

5 공예

조선 후기에는 백자가 널리 사용되어 민간에까지 확대되었다. 안료도 청화, 철화, 진사 등 다채로웠는데, 흰 바탕에 푸른 유약을 발라 꽃, 새, 산수 등 다양한 그림을 넣어 예술성을 높였다.

정 답

01	삼대목	06	천산대렵도	11	고사관수도	16	정간보
02	노리사치계	07	이규보	12	송하보월도	17	악학궤범
03	담징	08	경기체가	13	동문선	18	김홍도
04	아스카	09	역옹패설	14	필원잡기	19	신윤복
05	하쿠호	10	몽유도원도	15	패관잡기	20	동국진체